

玩月會盟宴 研究(一)¹⁾

金 鎮 世*

1

李朝後期の 作品으로 보여지는 이 「玩月會盟宴」은 現傳하는 한글소설 가운데서 가장 尙大한 分量의 作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作品에는 180卷 180冊으로 된 樂善齋本(文化財管理局 藏書閣 所藏)과 180卷 93冊으로 된 奎章閣本(서울대학교 所藏)의 두 完秩本이 있으며 延世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에 몇 권씩 落秩本이 있기도 하다.

樂善齋本은 32.2×22.0의 無郭 無絲欄 無版心에 半葉이 11行이고 每行의 字數는 24字~30字의 不定數이다. 宮體 筆寫本인 이것은 몇몇 宮女들에 의해 正성스레 씌어져 있다. 한편 奎章閣本은 無郭 無絲欄 無版心인 面에서는 樂善齋本과 同一하나 半葉의 行數는 10行~11行이고 每行의 字數는 20字~30字의 큰 幅을 가지고 있으며 책의 크기도 32.2×21.7, 30.0×19.2 등으로 代表되는 것 外에 規格이 조금씩 다른 約 15種으로 한 秩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다가 每冊의 字體도 相當한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宮體가 아닌 筆體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點으로 이것은 눈어림으로도 約 40名에 達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筆寫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李朝後期 長篇小說의 大部分이 그러하듯이 이 「玩月會盟宴」도 作者와 創作年代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奎章閣本의 경우는 “임인 원월 이십이일 필서”(卷 二), “세지 신축 십이월 엿일일 필서”(卷 百三), “세지 임인

* 人文大 助教授(國文學專攻)

1) 本研究는 產學協同財團 學術研究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춘이월 삼일 필서”(卷 百七). “세지 임인 춘삼월 팔일 필서”(卷 百十) 등과 같이 그 筆寫年代를 밝히고 있어 우리의 注目을 끈다. 이러한 記錄으로 미루어 筆者는 이 作品의 筆寫年代를 憲宗 七年(1841) 12月에서 다음 해인 憲宗 八年(1842) 3月까지의 4個月 동안으로 推定해 보았다.²⁾

이 「玩月會盟宴」은 180卷 180冊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龐大한 作品이다. 이것을 200字 原稿紙로 換算한다면 약 30,000枚에 該當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에도 이 作品은 또 그 續篇 乃至 後篇에 該當될 다른 作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뫼성호연」, 「양시가록」 「정시후록」 「향벽완취록」 「정시효힉보응녹」 「남정전승스실」 「향문향성총힉녹」 그리고 「장시별녹」 등 八種이다.³⁾

2

前記한 바와 같이 이 「玩月會盟宴」은 우리 韓國에서 가장 긴 小說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世界에서 가장 긴 作品일 만큼 龐大한 것이기에 그만큼 또 構成上의 複雜性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事件展開 뿐 아니라 登場人物들을 아무런 無理없이 處理하고 있다는 點에서 우선 그 作品的 價値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또 主題面에 있어서도 이 作品은 特異하다. 우리나라 古代小說의 경우, 그 主題란 勸善懲惡의인 바탕 위에 孝면 孝, 忠이면 忠 또는 友愛 등을 따로 떼어서 다루고 있고 또 箇中에는 忠과 孝를 한데 묶어 다루고 있는 作品이 있기는 하지만 이 作品처럼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同時的으로 다루고 있는 作品은 보기 드문 실정이다. 한 마디로 이 作品은 李氏朝鮮의 指導階層에서 내세우던 그들의 指導理念인 「孝悌忠信」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은 또 小說을 蛇蝎視하던 李朝社會가 後期에 와서는 小說을 修身書的인 方向으로 轉換시켰다는 可能性마저 드러내고 있어 興味

2) 拙稿: 李朝大河小說研究 古典文學研究 第三輯

3) 上揭書

롭다 하겠다.

3

筆者는 이 「玩月會盟宴」이란 作品을 多角的으로 調査해 보았다. 첫째 現傳하는 이 作品의 筆高年代 推定, 둘째 이 作品의 續篇과 그 傍系作品, 셋째 이 作品의 우리나라 創作小說로서의 典據, 넷째 이 作品에서 찾아볼 수 있는 思想 그리고 끝으로 이 作品의 主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前記한 바와 같이 이 作品이 너무나 老大的한 것이기 때문에 한 紙面에 調査한 바 全部를 실을 수가 없어서 많은 分量을 다른 紙面으로 옮겼다.」 그래도 여기 이 紙面이 不足하여 매우 制限된 分量만을 掲載하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主로 이 作品의 梗概를 紹介하기로 하였는데 그것도 全部를 紹介하지 못하고 180冊 中 50冊까지의 것만을 紹介할 수 밖에 없어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殘餘部分은 紙面이 許諾하는 대로 곧 紹介하겠다.

4

大明 英宗 年間이다. 황태부 수각노 진국공 정한은 學問과 讀書를 좋아할 뿐 아니라 어질고 友愛롭고 청렴한 人物이었다. 그는 開國功臣인 위국공 서달의 孫女를 아내로 맞은 지 30년에 膝下에 二男一女를 두고 南門 밖 태운산에 卜居하고 있었다. 그곳은 風景이 아름다워 여산폭포와 巫山 十二峯을 옮겨 놓은 듯하였다. 왼쪽으로는 臥龍灘이 굽이져 흐르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玩月臺가 있었다.

長子인 정잠은 字를 운백, 號를 청계라 했다. 人品이 뛰어나고 忠孝를 으뜸으로 할 뿐 아니라 淸儉을 앞세우매 上寵이 태부의 버금이었다. 12세에

주밀사 양교의 딸을 맞아 문연각 태학사의 職責을 맡은 그날까지 그는 膝下에 두 딸만을 두고 있었다.

次子 정삼은 字를 여백, 號를 운계라 했다. 15세에 좌각노 화첩의 딸을 맞아 三子一女를 두고 있었다. 정삼은 學行道德이 뛰어났기 때문에 못 사람들이 다투어 그를 天庭에 薦擧하였고 上이 여섯번이나 그를 불렀는데도 그는 끝내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나 아무도 그를 不忠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정태사는 上에게 盡忠竭力할 뿐 아니라 百姓에 대해서도 남다른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장원 밖에 救貧館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積善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태운산을 찾아들었다. 여기에 모여든 七十餘弟子 中에서도 가장 뛰어난 者는 이빈과 장현이었다.

이빈은 字를 석보, 號를 창계라 하였는데 그는 태사 조점의 사위였다. 타고난 性品이 仁厚한 데다가 學識이 뛰어나 아무도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장현은 字를 우백, 號를 미수라 했다. 그의 父親이 본래 가난하여 태운산의 救貧館에 와서 지내다가 장현을 낳고 죽으니 정태사의 아내인 서부인은 그가 자기의 아들인 잠(청계)과 同年生이매 그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기르도록 했다. 자라면서 장현은 남다른 努力을 하여 史書古籍에 通達했으나 富貴에 貪을 내기 때문에 서부인은 그것을 민망히 여기곤 했다.

장현은 14세에 태사 연침의 딸을 맞아 非常한 아들을 낳았으나 그가 소주 자사로 가던 途中 도적을 만나 그 아들을 잃고 말았다. 그뒤 그는 側室인 朴氏에게서 첫딸을 얻고 이어 두 아들을 얻으니 그는 朴氏에게 빠지게 되었다. 京師에서 이빈등이 友情으로 장현을 간이태부로 오게 하자 그는 京師에 와서는 朴氏의 아들로 代를 잇도록 하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程府의 長子 청계는 부인 양씨와의 사이에 두 딸만이 있을 뿐이어서 동생인 운계와 그의 부인 화씨 사이에서 난 6세의 인성을 養子로 하고 이 사실을 父親의 生辰날에 公表하였다.

程太師의 生辰날 程府는 떠들석했다. 태부의 친구들, 弟子들 그리고 子孫들이 그를 祝福했다. 밤이 들어 달이 뜨자 이 祝福의 자리는 玩月臺로 옮겨

졌다. 餘興이 끝나고 話題가 子孫에게로 옮겨지자 이야기는 다시 婚事問題로 進展하였는데 조태사의 提案에 따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들 보지도 못한 아들, 딸들을 두고 定婚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盟約을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청계의 만말과 한림인 조세창과의 結緣을 爲始하여 청계의 養子인 인성과 이빈의 딸이 맺어졌고 운계의 만말과 이빈이 주어다 기른 아들인 창헌이 맺어졌으며 장헌의 딸과 운계의 아들인 인광과의 結緣이 맺어졌다. 오래지 않아 趙府에서 成親을 재촉하여 한림 조세창과 명염소저의 結婚은 無難하게 이루어졌고 이 兩家에서는 서로들 그 結婚에 滿足해 했다.

仲夏에 접어들면서 자리에 눕게 된 추밀사 양공이 마침내 世上을 떠나자 청계의 부인인 양씨가 父親의 葬禮에 갔다 온 후로 持病이 惡化되어 그녀 또한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양씨의 一周忌가 지나자 태사는 아들인 청계에게 再娶를 強勸하였다. 청계는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집안을 위해 父母의 그 勸誘에 따르기로 하였다.

程太師는 양씨가 너무 美麗하여 短命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새 며느리는 色德이 兼備치 않아도, 또 鄉村의 寒門之女라도 賢淑하기만 하면 滿足스럽다 하였고 程尙書(청계) 또한 그 뜻에 同意하고 있었다.

소희량의 字는 충중으로 宋朝 동라선생의 後裔였다. 그는 學問이 廣博하였고 부인 주씨는 參知政事 주효의 딸이었다. 이들의 四子三女가 모두 뛰어났는데 그 막내딸만이 아직 出嫁하지 않은 터였다. 이에 程府에서 그 消息을 듣고 請婚하매, 程府를 잘 아는 소부에서는 後娶임을 혐의치 않고 許諾하여 곧 擇日 成婚하였다.

소씨가 뛰어난 面이 많으나 尙書는 선뜻 내키지 않음에 조심스러워 하다가 父母의 꾸지람을 듣고, 同寢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그는凶한 짐승이 인성을 훔하려는 꿈과 소씨가 시퍼런 칼날을 번득여 인성을 찌르려고 하는 꿈을 꾸고는 점점 소씨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

程太師가 恠연이 得病한 뒤로 萬藥이 効驗이 없으며 그는 子孫들을 불러 타이르고 遺書 四通을 幷중에 두었으니 그 때를 따라 보라 하고는 殞命하니

그때 나이 50이었다. 三喪을 지내기로 하고 모두 태주로 내려갔는데 청계만은 다시 京師로 올라와 母親을 비롯한 남은 家族들을 데려가기로 하였다.

소씨가 잉태 滿朔하여 雙玉童을 낳았다. 두 아들을 두게 된 소씨는 養子인 인성이 있어 자기의 아들로 程家の 宗統을 이을 수 없음을 한탄하게 되었다. 이때 녹빙과 계월이란 두 婢子는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인성을 없이하고 소씨의 아들로 程家の 宗統을 잇도록 計巧를 도모하자고 했다.

程太師, 양추밀 그리고 화각노가 죽은 뒤를 이어 程尙書마저 벼슬을 그만두고 鄉里로 내려가게 되자 機會를 노리고 있던 왕진(환관)은 상을 움직여 勢道를 부리게 되니 政事는 날로 昏迷하기 始作하였다. 이에 程尙書는 그를 따르겠다는 從弟들을 京師에 남도록 하고는 上이 내치는 날까지 忠誠을 다 하라고 당부해 두었다.

소씨의 計巧를 이루기 위해 계월과 녹빙은各有各 맹취와 왕술위라는 흉칙한 놈들에게 부탁을 해두었다. 이들은 程家가 태주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경왕에게 가서 程尙書의 둘째 딸 월염이 뛰어났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 일러 주었다. 경왕은 본래 탐음호방할 뿐 아니라 능려교활하였기 때문에 上의 사랑을 받아왔지마는 程太師등 原任大臣들이 있어서 제 뜻을 펴지 못하다가 이제 때를 얻었다고 좋아하였다. 그는 맹취에게 三百名의 壯士를 주고 그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다.

程尙書 一行이 驛站에서 쉬고 있을 때 맹취는 그곳에 불을 지르고 월염과 인성을 앗으려 하였으나 尙書一行은 요행히 그 禍를 피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이들은 다시 賊徒의 습격을 당하여 進退兩難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앞 江 위에 두척의 배가 있기에 그 배에 分散하여 탔다. 그런데 賊徒들은 다시 이 배를 덮쳤기 때문에 一大混亂이 일어나 尙書의 一行은 그만 뿔뿔히 헤어지고 말았다. 尙書는 늘 母親에게 神經을 쓰고 있던 터이라 母夫人을 安全하게 모실 수 있었지마는 인성과 인평 그리고 월염등에 대해서는 그 生死조차 앞 길이었다.

北奴 야선이 邊方을 침노할 뿐 아니라 노략질을 자행하니 宦官 왕진은 上이 親征하기를 主張하였다. 이때 조세창은 그것이 不可함을 말하며 反對하

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진을 두려워하던 터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上은 조세창의 反對에 크게 화를 냈으나 조세창은 이에 굽히지 않고 그 不可함을 繼續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宦官이 政事에 干涉하는 나라치고 잘된 例를 보지 못했다는 強硬한 發言으로 더욱더 上의 진노를 샀다. 이때 上은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忠誠스러움을 아뢰어 죽음만은免케 되었다. 그러나 그는 流配를 당하고 말았다. 조세창을 죽이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왕진은 조금오와 조태사(父, 祖父)의 벼슬을 걸우게 하고 그들을 田里로 내몰고 말았다.

정흠(문계)이 從兄인 청계의 당부로 京師에 남아서 忠誠을 다하니 上은 그를 禮部尙書로 陞任하였다. 그러나 문계는 왕진의 親征論에는 뜻을 같이 하지 못했다. 그는 끝까지 그 北征論을 反對하였다. 이에 上은 크게 화를 내고 그에게 烙刑까지 加하였으나 굽히지 않으매 上은 다시 그를 下獄케 하였는데 문계는 이 刑獄을 이기지 못해 그만 운절하고 말았다.

上이 왕진을 寵愛하자 忠臣은 모두 밀려나고 奸臣輩들이 得勢하기에 이르렀다. 上은 경왕에게 김영보등을 거느려 京師를 지키게 하고 自身은 五十萬大軍을 거느리고 親征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上은 그곳에서 大敗하고 凶奴에게 애워싸여 그 形勢가 매우 危胎롭게 되었다.

先是에 조세창이 上의 親征을 反對하다가 北方에 流配되었던 터인데 그는 上이 危胎롭다는 消息을 듣고는 홀몸으로 凶奴軍에 뛰어들어 上을 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上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야 그가 조세창임을 알고는 지난날의 자기 잘못을 뉘우칠 뿐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手足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때 조세창은 이빈 양선 등 지난날의 忠臣이 없음을 보고 곧 그들을 불러 左右를 보필케 하라고 아뢰었다. 이때 야선은 변사를 보내어 몇몇 忠臣을 불모로 하는 條件으로 天子를 백안령까지 돌려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굽기야는 조세창 혼자만을 불모로 남기고 天子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기로 合意하였다.

한편 中原에서는 天子가 北奴에게 묶이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太后는

景泰로 하여금 代理케 했다. 이에 왕진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快哉를 불렀으나 程府의 사람들은 繼續 毆박을 당해야만 했다. 본래부터 景泰는 程府의 人士들을 미워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越南天使로 갔던 정협(양계)과 江西按撫使로 갔었던 정엽(의계)등은 모두 그 任務를 完遂하고 돌아왔으나 田里로 돌아가 쉬게 되었다. 그러나 장헌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왕진에게 迎습하느라고 문계의 문상도 꺼려 夜陰을 타서 남몰래 왔었던 터인데 이번에는 景泰에 迎습하여 다시 禮部尙書 집금오로 陞品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程太師의 三喪을 지내고 한 자리에 모여 앉은 程尙書 兄弟들은 太師의 遺書를 읽었다. 그 글에서 그는 長子 잠에게는 “작은 事情으로 不忠의 罪를 짓지 말고 離親捨家하여 龍體를 받들어 아버지의 遺付를 저버리지 말라” 하였고 次子 삼에게는 “天台山 은청동 벽한정에 一家 諸人으로서 더불어 陰身사세하여 요란한 시절을 피한즉 七, 八年 內에 手苦를 和樂으로 바꾸어 母子兄弟가 一堂에 安就하리라” 하였다. 이에 청계는 父親의 遺志대로 盡忠을 위해 計劃을 세운 뒤 北쪽에서 간혀 있는 天子를 돕기 위해 떠났고 운제는 家眷을 이끌고 天台山으로 옮겼다. 이때 청계는 그의 아내인 소씨가 그 마음가짐이 奸凶함을 깨닫고 特히 그녀에 대해 경계하라는 당부를 해주었다.

先是에 賊徒의 毒害를 만난 인성은 한 조각 널판에 매달려 三晝夜를 漂流하다가 蒙古人의 배를 만났다. 인성은 蒙古에 가 있게 되면 使臣 往來가 있으니 그 편으로 돌아가라는 船員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몽고에서의 인성의 生活은 평탄하지 못했다. 그때 몽고에서는 世子를 둘러싸고 暗鬪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인성은 한동안 곤욕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척발유에 의해 그 나라의 기틀이 잡히게 되자 인성은 척발유가 보내는 使臣을 따라 歸路에 올랐다. 그런데 이 배가 漂風하여 金國의 경상사변에 다달르게 되었다.

이때 金國에서는 國王에 現夢한 大人賢者를 찾고 있었다. 金國王은 인성을 보고서는 그가 至今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꼭 닮았다 하며 인성에게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자기를 도와달라고 請했다. 인성이 빨리 故國에 돌아가

고 싶음을 간청하니 金國王은 하는 수 없다 하고는 그 뜻을 굽혔다.

出發을 하루 앞두고 인성은 갑자기 病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때 그의 꿈에 王父가 나타나 定한 數가 있으니 너무 빨리 故國에 돌아가려 하지 말고 어떤 곳에서 지내게 되든지 自重하라고 당부하였다. 인성이 金國에 머무는 동안 時節이 좋고 人心이 和하여졌다. 이에 金王이 大國에 使臣을 보내려 하였으나 皇帝가 야선을 치다가 大敗하여 京都가 흉흉하다는 消息에 使臣 보내기를 미루기로 하였다. 얼마 뒤 景泰가 嗣位하였다 하자 使臣을 보내게 되었는데 인성은 그 使行을 따라 金國을 떠났으나 그는 故鄉으로 가지 않고 皇帝가 있다는 奴地로 갔다.

인광과 월염소저 또한 賊禍 뒤 漂流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人家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探藥하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妖徒들이었는데 그 우두머리인 손환은 인광을 태청관에, 그리고 월염소저는 청선관에 있는 石室에 가두어 두고 그들의 弟子가 되라고 보냈다. 인광과 월염이 限死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며 죽여 없애려고 하면서도 그 때를 定하지 못하여 미루고 있었다.

조주의 태행산에 엄정이란 隱士가 卜居하고 있었다. 그는 號를 광능자라 하였다. 어느날 그는 諸子婿孫과 함께 談話를 하다가 乾象을 보고는 규성과 문월성이 빛을 잃고 있음은 어느 貴人이 厄禍를 當하고 있는 것이라 하면서 長子인 엄옥과 次子 엄식 그리고 女婿인 진가숙을 데리고 계행산을 찾아갔다. 이들은 그곳에 妖徒의 石室이 있음을 發見하고 힘을 모아 그 妖徒들을 무찌르고는 한 公子를 救出해 내니 그가 바로 인광이었다. 이들은 인광에게서 월염소저 또한 抑留 當하고 있음을 듣고 辛苦 끝에 마침내 월염 마저 救出하기에 成功하였다.

월염과 인광은 얼마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故鄉에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 歸路에서 그들은 다시 賊禍를 만났다. 인광은 死力을 다하여 그 賊徒들과 싸웠다. 힘이 다할 지음에 두 壯士의 도움으로 도적들을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비로소 누님인 월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인광은 그를 敎한 사람이 家丁인 운학과 경용임을 알고는 安堵의 숨을 쉬

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서 太州의 父母들 消息도 들을 수 있었다. 운학과 경용은 어느 도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 와서 그를 救한 것이라 했다. 이들이 그곳 村落에서 지내다가 도적으로 몰려 그곳 按察使로 와 있는 장헌 앞에 끌려갔다. 장헌은 그들이 程府의 家丁들임을 알고는 반가운 빛을 보이려다가 景泰가 程府를 싫어함을 생각하고는 곧 正色을 하였다.

두 奴僕이 下獄을 당하매 인광은 혼자 落星村으로 가서 월염소저를 찾고 다녔다. 이때 禮部의 下吏인 최언선이 그에게 와서 문양 주관인 맹취가 程尙書를 잃어려 한다는 것과 정소저가 이곳에 와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 그리고 인광을 찾아 훔칠 것이라는 것 등을 말하였다. 또 그는 장헌의 本心이 그런 것은 아니나 景泰의 비위를 맞추어 벼슬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것을 들은 인광은 장헌의 人間됨에 해연함을 금하지 못했다.

한편 월염소저는 도적에게 몰려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으나 天佑神助로 그 목숨을 전질 수 있었다. 그녀는 본래 양부의 侍女로 있다가 鄉里에 돌아와 餘年을 보내고 있던 위정에 의해 救함을 받았던 것이다. 위정은 그 소저가 程府의 사람임을 알고는 자기 집에 깊숙이 숨겨두고 지냈다.

장헌은 문청공 정태부의 경계와 側室인 朴氏의 탓으로 지금껏 女色을 돌보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가 이렇게 客地에 와서 지내게 되니 女子를 찾기에 이르렀다. 이때 가월랑은 前日 위정의 집에서 본 바 있는 소저를 천거하였다.

최언선과 위정의 힘으로 서로 만나게 된 인광과 월염소저는 함께 行動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 헤어져 지내기로 했다. 월염소저가 그곳에 와 있던 양공 부인 宋氏에게 글을 올려 어려운 처지를 말하자 宋氏는 欣快히 허락하고 함께 上京키로 하였다. 이에 월염은 그곳으로 가기로 하고 그 대신 인광이 男化爲女하여 월염의 代役으로 장헌의 妻子구실을 하기로 하였다.

위정이 吉日을 擇하매 장헌이 그 假女人(인광)에게 왔으나 假女는 身病이 있다는니, 京師에 가서 父母를 만나기 前은 決코 許身치 않겠다느니 하며 지냈다. 이무렵 京師에서는 장헌의 召選令을 내렸다. 그것은 장헌의 딸로 景

泰의 後宮으로 드리려 하던 때문이었다. 이에 假女는 그의 上京行次를 따라 京師로 돌아오게 되었다.

월염소저는 양직사(수광)의 行次를 따라 上京하던 中途에서 청계공과 만나게 되었다. 청계공은 北奴의 땅으로 天子를 도우려 가던 길이고 양직사는 父親인 양추밀의 三年 守墓를 지내고 崔령산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청계공은 딸인 월염을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머물게 하는 한편 창린을 불러 자기가 北地에 가 있는 동안이라도 월염과의 혼사를 상의하여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화경부마 범단의 아들인 경화는 장헌의 딸인 성환소저를 한 번 본 뒤로 그녀와 結親하기를 願하고 있었다. 또 장헌의 側室인 朴氏도 權勢있는 그 집과의 그 結親을 贊成하였다. 그러나 장헌은 前日 인광과의 舊約이 있음을 말하며 그것을 反對하였다.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경화는 여러 가지로 行計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였다. 경화는 마침내 성환소저를 拉致하고자 하였다. 이때 성환소저는 경화의 모함에 걸려 그 父母들의 노여움을 사서 운산에 옮겨져 지내고 있었다. 경화가 운산의 성환소저를 急襲하였을 때 그녀는 유랑과 함께 逃亡을 하였으나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들릴 지경이 되자 그만 江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경화는 그녀를 단념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假女 인광은 장헌을 따라 京師에 이르렀으나 장헌은 아내인 朴氏를 두려워 하여 그 假女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사실을 알게 된 婢子가 그 일을 朴氏에게 告하고 말았다. 이에 그곳에 더 머물 수 없게 된 인광은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그는 갈 곳이 없어 崔령산의 양부에 들러 집안 소식을 듣고 곧 天台山으로 떠났다. 中途에서 그는 병이 되어 손최인이란 사람의 身勢를 지고 있었는데 寒食節享次 그곳에 왔던 소성암(정태부의 친구)를 만나 救함을 입었다.

소공은 인광을 보고는 사위를 삼겠노라 했다. 그때 인광은 父母가 계시고 자신은 어린 몸이니 父母의 뜻에 順從하겠노라 했다. 소공은 자기가 그 일은 주선하겠노라 하며 보살폈다. 하루는 인광이 소공과 함께 船遊를 하다가

女人의 屍身이 떠내려 음을 發見하였다. 인광은 서둘러 그녀를 건졌다. 그녀가 장현의 딸임을 알게 된 소공은 그녀에게는 자기가 건졌노라 하고 또 인광에게는 자기의 종제인 연태우의 딸이라 거짓말을 하였다. 소공은 이들이 뒷날 서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얼마후 이들은 後日의 期約을 남기고 소공은 西쪽으로, 인광은 南쪽으로 天台山을 향해 떠났다.

先是에 운제가 兩子를 失離하고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뜻밖에 양부의 奴者에게서 글을 받았다. 그는 월염과 인광 그리고 청계공의 消息을 듣고는 기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으나 인성과 여고의 生死를 몰라 안타까워 하였다. 그러던 春三月에 과연 인광이 돌아오매 一家 모두 기쁨에 넘쳤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장현과의 관계는 우물적 넘기려 하였다. 그러나 여러 叔父들이 자꾸 추궁하매 事實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程府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장현이 그들을 背反하였다고 욕을 하였으나 程太師의 아내인 서태부인만은 그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그를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차에 양부의 奴者가 또 글을 가지고 왔다. 이창린이 本生 父母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가 바로 장현이라는 것이다. 이에 程府에서는 서태부인의 뜻에 따라 만일 장현이 그 盟約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結親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러나 양계와 의계등은 장현의 허물을 들어 그 혼사를 반대하였다.

문계공의 三喪이 지나던 夏七月에 蒼頭인 경용이 노영에서 돌아와 인성의 글을 올렸다. 一家가 모두 즐거운 얼굴들인데 다만 소씨만은 心思가 不平하였다. 그녀는 그것을 크게 內色하지 않았으나 처사 운제와 서태부인은 스쳤다. 소씨는 첫번째 行計後에 그것이 的中하여 程府의 인성을 포함한 二子二女를 失離케 한 후 마음 속으로 快哉를 부르며 지냈다. 그러다가 지난 正月에 인광이 살았다는 기별이 있자 心思가 울적하였는데 과연 지난 봄에 그가 살아서 돌아왔고 또 이번에는 인성마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상서父子와 월염소저 위하는 근심이 간절하던 때 서천의 소공이 태산에 왔다. 그는 지난날 江村에서 인광이 장소저(성한소저) 敎하던 일과 이들이 天

定한 配匹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인평이 固執스럽게 그녀와 結親치 않으려 하며 장녀를 연소저라 속였음도 말하였다. 이에 운계는 人倫大事를 속이면서 까지 할 것이 없으니 그 사실을 밝히고 그들을 成婚케 하겠노라고 했다. 이에 소공은 다시 자기의 막내딸로 인평의 빈실을 請하였다. 이때 운계는 굳이 사양하였으나 소공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매 운계는 하는 수 없이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장헌은 假女事件으로 因하여 朴氏의 甚한 구박을 받았고 또 假女와는 즐겨 보기도 못하고 그녀를 놓쳤는데 거기에 덧붙여 딸마저 賊禍로 잃게 되자 그는 그만 病이 되어 눕게 되었다. 이때 그는 十年前 소주땅에서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어 겨우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이때 朴氏는 창린의 生還으로 因하여 去勢한 本妻인 연씨의 勢力이 커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오빠 딸인 교랑을 창린과 成婚시키려 하였다. 교랑은 창린을 본 후로 몹시 그를 따르려 하며 朴氏는 장헌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極力 주선하였다. 장헌은 애당초 이 婚事를 別로 생각지 않았으나 지난날 假女事件으로 因한 허물과 교랑이 權勢있는 범도위와 表門間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일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창린은 이것을 極力 反對하였다. 그는 지난날 玩月臺上의 盟約을 고집스럽게 내세웠으나 그것이 通하지 않았다. 이에 창린은 월염과 成婚하였음을 말하고 寒士에 兩妻 있을 수 없다고 이를 완강히 拒絶하였다.

그러나 교랑은 마침내 창린의 副室이 되고 말았다. 창린이 그녀를 돌보지 않고 월염에게만 往來하며 교랑은 朴氏의 힘을 지고 월염을 몹시 구박하였다. 이때 또 景泰가 即位하자 그의 一女 설능이 公主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 男便인 등수도 都尉 관면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長女인 낙선군주가 우연히 창린을 보고 그에게 感하여 賜婚을 받게 되었다. 이에 창린은 복잡해진 자신의 周邊이 싫어서 一封書를 남기고 홀연히 天子가 있는 北奴의 땅으로 떠나고 말았다.

程尙書는 千辛萬苦 끝에 上과 이창계를 만나게 되었다. 그 지음에 야선은 양선과 이창계(빈) 二人을 볼모로 보내면 六, 七年을 그음하여 皇帝를 中原

으로 돌려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上이 이에 應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 程尙書가 그들 代身 胡地에 나가겠다 하였으나 上은 이를 反對하였다. 그러나 야선의 구박이 점점 심해지매 上은 程尙書를 그곳에 보내기로 하였다.

程尙書가 胡地에서 病이나서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조어사(세창)이 돌보았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이때 인성은 金國 使臣과 함께 故國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周易을 잠심하다가 그 父親의 위급함을 깨닫고 곧장 그곳으로 떠났다.

인성은 中途에서 處士 엄경을 만나 도움을 받았고, 노영의 天子를 도우러 가다가 破船을 당하여 죽게 된 곽창석을 救하기도 하였다. 인성이 노영에 다달았을 때 그의 父親인 程尙書는 거의 屍身이 되어 있었다. 그는 천간봉에 올라가 어름을 깨고 淸溪水를 받아 그 물로 沐浴하고 天神에게 그 父親의 生還을 祝禱하였다. 四日이 지나자 인성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前日 그가 救해 준 바 있던 곽창석이 그곳에 이르러 인성을 救하였다. 인성은 엄處士가 준 丸藥으로 父親을 救護하니 程尙書는 마침내 蘇生하게 되었다.

新年이 되매 경용을 故國에 보내어 消息을 傳하고 지내는데 엄처사는 弟子 한 사람을 수시로 보내어 丸藥으로 그들이 生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生活이 三·四年 지나매 백안을 보내어 天子의 還國을 재촉하니 야선은 조어사와 程尙書만을 머물르게 하고는 上의 還國을 許諾하였다.

景泰가 即位한 뒤로 이빈을 찬출하니 화도현이 또한 물러가고 말았다. 그러자 景泰는 양선으로 도어사를 任命하였는데 양선은 몇몇 뜻있는 人士들을 復職시키고 南宮을 通하여 擧事하였다. 이것이 成功하매 上은 다시 復位하였다. 한편 上皇이 떠난지 오래지 않아 야선이 죽고 대동왕이 即位하게 되었다. 그는 中原과 父子之國이 되기를 請하며 지금까지 야선의 잘못을 사죄하였다. 이에 程尙書와 조어사는 곧 故國에 돌아오게 되었다. 上은 이들에게 封王을 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그것을 완강히 물리치고 前職을 그대로 받기로 하였다.

上이 조금오(겸)을 대하여 아들의 忠節을 기리고 또 정염에 대해서는 지난날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며 정흠에게 예부상서 문연각 태학사 하람백을

迫贈하는 한편 그의 딸에게는·취부함을 기다려 지효장열인선군 부인행의 문을 높이기로 하였다. 國家에서 慶科를 베푸니 정인성이 壯元, 장창린이 第二, 양필광이 第三, 그리고 정인홍이 第四에 각각 及第하였다. 인광은 處士公이 이 科擧에 應試치 못하게 해서 出場치 못하였다.

정참정(잠)이 딸을 보려고 갔더니 정소저는 아직 의욕이 풀리지 않아 雙兒를 낳은 채 深處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에 창린은 무안해 하였는데 上이 復位하자 장헌은 五세짜리 孫子를 데리고 曠지로 나가 버렸다. 모두들 그의 人間됨을 한결 더 통탄해 하였다. 고랑이 謀計를 부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景泰가 물러나매 그 事件이 탄로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때 장헌이 허물로 말쟁이 되었으나 그래도 그는 上이 노영에 있을 때 皇后에게 축단 3000匹을 드린 일이 있었으며 上이 南宮에 있을 때 扈衛총관하였고 또 그의 아들 창린의 뛰어난함을 힘입어 그 죄는 不問에 붙이기로 하였다.

한편 天台山에서는 上이 노영으로 간 뒤로 상서를 보내고 걱정으로 지내고 있었으나 소씨만은 그녀의 己出인 人證으로 宗統을 잇게 하려는 計巧를 繼續하고 있었다. 이때 맹취는 景泰의 부림을 받아 程氏一家를 없애려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틈을 타 程府를 急襲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맹취가 죽은 것을 안 계월이 누어 일어나지 않자 소씨는 이 事實을 인광이 알까봐 두려워하였다.

왕술위와 맹취가 賊徒의 괴수이며 소씨가 이들과 연계되었음을 말하는 것을 들은 人證은 母親에게 가서 그 일을 따졌다. 이때 소씨는 태연히 잘못된 말이니 흘려 넘기고 兄弟間 叔侄間 이간의 말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자 人證은 분을 참지 못하여 인광을 죽이고 處士公의 諸子를 없애겠다고 다짐하였다.

화부인의 第三 거거인 내사 화흡이 天下를 周遊하다가 天台山에 瑞氣가 어리고 있으며 가보니 人성이 先山에 소분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두 동생을 만났다. 정참정공이 京師로 떠나던 날 그는 짝기가 있어 떠나지 못했다. 인광이 그를 보살폈다. 병이 完快하자 이들 叔侄은 함께 京師로 떠났다. 이때 그가 장린과의 舊約을 말하자 인광은 죽은 계집을 위해

수절하는 男子 있느냐고 不平을 하기도 하였다.

창린은 영친의 말미를 얻었다. 이때 장헌은 孫子를 데리고 연부에 가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음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소공은 기왕사는 말하지 않았으나 장녀가 이미 자기의 養女가 되었고 또 인광과의 約婚도 해두었음을 말하자 장헌은 모든 것을 그의 의견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장헌은 程府의 消息을 듣고 반갑기도 하였으나 자기의 權勢가 떨어지고 程府의 勢力이 커짐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는 곧 程府에 가서 사죄하리라 생각하며 上京을 決心하였다. 이때 연부인은 창린이 三日遊街後 이곳에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떠나고 말았다. 창린이 급히 내려왔으나 그 父親을 만나지 못하였다. 장헌은 바로 이빈의 집으로 가서 정소저를 만났다. 지금까지 그는 이 정소저를 구박하였던 것이다. 그는 정소저를 달래어 바로 태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대접하는가 하면 程府의 沒落과 함께 막아버렸던 程府로 通하는 門을 더놓기도 하였다.

程府의 一家가 南門에 당도하였음을 들은 장헌은 곧 그 며느리인 정소저로 하여금 지난날 자기의 허물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정소저는 이러한 것은 다 빼버리고 人事말만 갖추어 보냈다. 그러한 內幕을 모르는 장헌은 곧 江頭에 나아가 서태부인 뵈기를 請하였다. 이에 앞서 청계와 운계가 장헌을 맞아 아무런 사색이 없이 情답게 대하니 장헌도 한결 多幸스럽게 여겼다. 또 그가 서태부인 앞에 인도되었을 때에도 태부인은 亦是 그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어릴 적부터의 情 그대로 대하였다. 이러한 것에 不滿스러움을 느꼈던 경조공이 장헌을 힐난하다가 叔母와 從兄들에게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장헌이 인홍을 인광으로 착각하고 내 사위 내 사위 하매 인홍이 언짢게 여기고 인광형은 형산의 중이 되고자 이곳에 오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딱하게 여긴 운계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叔父의 병으로 困하여 뒤떨어졌으니 곧 돌아오리라고 알려 주었다. 이야기가 인광과 정소저의

婚事に 이르자 인광의 性格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지난날 江村에서의 일을 속이자고 하였다. 운계공은 人倫大事를 두고 父子間에 속일 수 없다 하였으나 서태부인과 청계공도 당분간 그 일은 속이는 것이 좋겠다 하며 운계도 그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조이부 후암공이 父公을 뵈시고 京師로 돌아오다가 소운산에 이르렀을 때였다. 女人의 悲鳴소리를 듣고 가보니 나무가지에 한 女人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賊禍를 만나 그 지경이 되었고 자기 主人은 自刎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그곳에 가보니 피를 많이 흘리기는 하였으나 아직 命이 끊기지지는 않았다. 그들이 극진히 구호하니 그녀는 마침내 소생하였다.

상소저가 賊禍後로 한부에 팔리자 한학사는 지인명감으로 그녀가 천인이 아님을 깨닫고 수양딸로 키우면서 자기의 딸과 결의자매케 하였다. 그런데 한공이 찬출되자 교녀의 毒手를 뚫지 못하여 한소저와 아울러 참변대화물 입고 요행히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다시 소운산에서 적화물 만나 마침내 자경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정사인(인성)의 길기가 다달아 婚事が 이루어졌다. 인성의 뛰어난과 이소저의 출중한 人品에 모든 사람들은 흠모해 맞이않았다. 당초부터 인성을 없애려던 소씨는 아직껏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恨스케 여겼을 뿐 아니라 못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가 높을수록 그녀의 인성에 대한 증오는 굳어만 갔다. 이소저를 맞이한 뒤로 소씨의 그녀에 대한 구박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이소저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내색지 않았으며 그 형수를 몹시 따르던 인응도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장한림(창린)이 慈位를 받들어 京師에 無事히 得達하여 태운산으로 갔다. 연씨는 朴氏와 장현의 不仁을 아는 고로 성한소저를 소공에게 맡기고 갔다. 장현은 不滿스러운 데다가 前日 인흥에게서 들은 바 인광이 世上을 버리겠다던 것이 마음에 걸려 不平을 하였다. 이에 창린이 父親을 說得하였다. 程府에서는 소공에게 가서 擇日을 하였다. 인광과 장소저가 成婚을 하였다. 그날밤 인광은 新房에서 아내의 뛰어난 얼굴을 보고 어렸을 때 본 일이 있던 장소저와 닮은 데가 있음을 생각하는 한편 伯父와 父親이 하던 말을 상

기하고는 그녀가 장녀임을 단정하였다. 그리고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그는 그 新房에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는 말끝마다 장헌을 욕하며 장소저를 아내로 대접하려 하지 않으매 處士는 지난날의 여러가지 일들이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그를 조용히 타일렀다.

中秋에 天子가 성묘에 拜謁하고 設場을 하였다. 壯元은 이각노(빈)의 아들인 창현이 하였고 정인광은 그 第二에 뽑혔다. 참정공과 처사공이 인광을 데리고 장부에 갔다. 장공은 사위가 及第를 하고 음을 크게 기뻐하였으나 인광은 그 기쁨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장가의 음식은 먹지 않겠노라 하며 술도 받아 마시지 않으려 하였으나 伯父와 父親이 있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였다.

얼마 뒤 소공이 와서 자기의 딸로 인광의 빈실이 되기를 請하매 處士는 이를 허락하고 곧 擇日 成婚하였다. 소공은 인광을 몹시 사랑하였고 또 자기의 딸이 장소저만은 못하다 할지라도 인광의 福 있음을 치하하였다. 그날밤 인광은 新房에 들었으나 장소저를 맞이하고도 아직 同寢함이 없었다 하고는 소소저를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소소저가 程府에 오니 그 아름다움과 부도에 뛰어남에 모두 기뻐하였다.

인광이 오래도록 장소저 處所에 가지 않음을 알게 된 處士는 조용히 그를 경계하였다. 인광이 처음에는 고집을 굳게 하였으나 嚴父의 경계를 듣고는 어찌고 그 뜻을 貫徹치 못할 바에는 父命에 順從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녀의 處所에 갔다. 그는 장소저의 뛰어남과 숙렬함을 보고는 朴氏와 장축 같은 몸에서 어떻게 저러한 딸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고 차차 그녀를 예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밤 그는 마침내 장소저와 同寢하기에 이르렀다.

天子가 人材登用을 위하여 重試를 폈다. 이때 정인성이 壯元이 되었고 이창현이 第二에, 장창린이 第三에, 그리고 정인광 양필광 엄희윤, 정인홍의 順位로 뽑히게 되었다. 天子는 第三位에까지는 그 벼슬을 들우었다. 장헌이 기뻐함은 말할 것 없고 程府에서도 모두들 기뻐하였다. 그러자 소씨와 인중은 참정공이 인성만 생각하고 자기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不平을 하면서 인성을 죽여 없애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다음날 나라에서 程府에 大宴을 下賜하였다. 이때 朴氏가 그곳에 왔다가 小소저를 보고는 악을 쓰기 시작하였다. 창린과 그의 아내 正소저, 그리고 장소저가 억지로 무마하고 집으로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장소저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父母와 古구께 不孝가 莫甚함을 생각하고 그날부터 一切 음식을 먹지 아니 하며 母親에게 인광이 小소저를 빈실로 맞아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해로움이 없음을 말하였다. 이에 朴氏는 딸이 식음을 전폐함에 겁을 먹고 한때 잠잠하였으나 그 속마음은 달랐다.

소씨는 시중(인성)의 뛰어난이 갈수록 마음을 찌르고 소출인 人證을 경시함에 더욱 애답아 하며 시중 없애기를 자꾸 다짐하게 되었다. 인웅이 觸感함에 소씨가 시중처 小소저를 시켜 藥을 주게 하였는데 인웅이 그 藥을 먹고 토하는 법석을 부렸다. 參정공이 이 약이 거쳐간 사정을 살피고 소씨의 婢子인 녹빙과 계월을 다스린 結果 그 毒藥이 人證에 의해 加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人證은 자기의 雙胎 동생인 인웅에게 毒藥을 먹게 함으로써 시중의 아내 이씨를 모함하려 하였던 것이다. 參정은 前부터 소씨의 속마음을 스치고 있었던 터이라 이 일이 그녀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人證을 嚴하게 다스리려 하였으나 태부인이 周나라 文公의 故事를 들어 血肉之情을 생각하라 하며 參정공은 저욕이 참기로 하였다.

參정공은 人證에게 笞杖을 加하고 벽처인 벽서정에 가두어 두고 出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랑이 人證에게 가서 달래고 상처를 구호하려 하니 人證은 오히려 발악하였다. 다음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參정이 소씨에게 人證의 교독함을 말하니 소씨는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고 태교 잘 하지 못함을 사죄하고 人證을 죽여 없애고 집안을 편케 하라고 하였다.

인웅이 伯兄과 형수인 小소저의 大孝를 익히 아는 고로 生母인 소씨에게 가서 바른 말을 하였다. 소씨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하였으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이때 인성이 人證을 타이르고 소씨에게 오니 그녀는 인성을 大罵하나 그는 끝까지 和聲으

로 대하였다. 이에 그녀는 술에 毒藥을 타서 그에게 먹이니 그는 그것이 毒藥인 줄을 알면서도 태연히 받아 마시고 곧 나와 解毒藥을 먹고 토했다. 저녁에 혼정차 또 소씨에게 간 인성에게 그녀는 다시 술을 권하며 毒藥을 마시게 하였다. 이때부터 인성은 解毒藥을 늘 준비하고 다니며 그 위급함을 모면하곤 하였다. 이러한 것을 목도하게 된 인웅은 어떻게 하던지 그의 伯兄과 兄嫂를 도와야 되겠다고 決心하였다.

하루는 인성과 인웅이 소씨에게 갔더니 그녀는 온탕을 내주었다. 인웅은 모친의 그 失德을 간하려고兄의 것과 자기의 것을 바꾸어 마셨다. 이에 당황한 소씨는 아들의 경솔함을 한하였다. 이날 인웅은 그 生母인 소씨에게 伯兄夫婦에 대한 고집을 풀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그녀는 아들의 衷情을 默殺하고 하였다.

영릉도위 한계선은 今上の 愛孀다. 幼時에 그의 親母 탕씨가 죽고 주씨(소원의 부인—소씨의 어머니인 주씨의 동생)가 그의 繼母로 出嫁하였었다. 그녀는 無德하여 後日의 榮華를 꿈꾸고 公主가 낳은 딸을 대학사 양의의 女兒와 바꾸고 公主의 딸은 시비 교란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였다. 교란은 차마 그 女兒를 죽이지 못하여 제 아자미인 심파에게 주니 심파는 또 그 女兒를 서소랑(정경의 妻)에게 銀量을 받고 팔았다. 서소랑은 그 女兒(난소)를 교애하며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奸婢 소옥이 세월과 신매의 꾀임에 빠져 난소를 누얼에 빠지게 하니 난소가 그만 참지 못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참정공과 處士가 救하고 보니 딸에 글씨 쓴 것이 있어 그것으로 이 아이를 한도위의 罪女로 斷定하고는 이 사실을 한도위에게 알렸다. 그는 公主와 相識한 끝에 그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딸이 親女가 아님을 알고 程府에 딸을 찾으러 갔다. 그들은 심파를 데리고 태운산에 가서 그녀가 딸을 팔던 때의 사정을 확인하고 父女의 禮로 서로 몸을 講하였다. 이때 난소는 그에 앞서 舍血을 해봄이 좋겠다 하며 그 뜻을 따랐더니 한도위와도 맞고 또 한公子의 것과도 一致하였다.

난소가 자기의 딸임을 확인한 한도위는 그녀를 인성의 빈실로 건우어 줄 것을 講하였다. 이에 참정공은 인성과 난소가 이미 서로 봄이 있었으니 男

妹의 養를 맺자고 사양하였으나 도위는 굳이 그 빈실을 원하였다. 이에 참정공은 하는 수 없이 태부인의 許諾을 얻어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일이 이에 미치매 公主가 지금까지 친딸인 줄 알고 기르던 일아는 남의 딸임을 알게 되었으나 기른 情을 버리지 못하여 일아를 養女로 경하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주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이를 일찍 죽이지 못하였음을 恨할 뿐이었다.

영종황제가 復位한 후로 天下가 泰平했는데 교지 월남 등이 反旗를 들었다. 이때 황제는 이것을 다스릴 마땅한 人物이 없어 苦心하는데 참정공이 自願을 하고 나섰다. 上은 그가 胡地에서 六年 苦楚를 겪은 것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하는 수 없이 그를 다시 그곳에 보내기로 하였다.

참정공은 中軍 體察使로 아들인 인성을 起用하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나 老母인 태부인에게는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번의 이 任務는 빠르면 六, 七年, 길면 十年을 내다 보아야 할 重責이었기 때문이었다. 태부인이 이 사실을 듣고 속으로는 心亂하였으나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며느리에 앞서 참정공은 인성을 용서하였고 인성은 胎氣 있을 이소저에게 保重함을 당부하였다. 이들이 出征하매 소씨는 며느리 이소저를 없애려고 行計를 하기 始作하였다.

장현의 次子 희린은 본래 뛰어난 面이 없었으나 그의 兄인 어사의 교도를 받고 착실한 人間이 되었다. 그는 處士 주양의 次女와 成婚을 하였다. 그녀는 얼굴이 아름답지 않았기에 張公과 朴氏는 그녀를 싫어하였으나 희린은 그의 兄과 兄嫂 그리고 연부인의 당부를 색여듣고 情답게 지냈다.

朴氏는 이곳 저곳 異姑들을 불러 드리는가 하면 銀量을 풀어가며 딸의 幸福을 追求하였다. 그녀는 소소저가 恒常 마음에 걸려 婢子를 장소저에게 보내어 소소저를 叱辱케 하였으나 장소저는 조금도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程府에서 경조원의 次子 인유가 成婚하던 날 朴氏가 그곳에 와서는 한림(인광)이 장소저를 박대한다고 요란을 피우려다가 장소저와 며느리 程소저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소저가 병이 되어 吐血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림은 놀라 手足을 주무르고 약을 먹게 하고 하면서 밤새도록 그녀를 구완하였다. 그런데도 張公이 딸의 病勢를 보고는 인광이 전혀 구완하지 않는다 하며 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조리케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소저는 그것을 말렸다. 張公이 사위 보기를 請하매 避身하였던 한림은 나와서 인사를 하였다. 張公이 한림의 無信함을 탓하여도 인광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朴氏는 또 화부인에게 書札을 보내어 사위의 無信과 장소저의 욕을 하였다. 이렇게 되니 인광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상에게 表를 올리고 남채문명을 돌려 보내어 出妻를 하려고 하였으나 父親이 出他中이라 그 일을 敢行치 못하였다.

인광은 화집에 장소저의 유모와 시녀들을 猛打하고 내치며 장소저에게는 칼과 노끈 그리고 집을 주며 自決하라고까지 하였다. 이에 지난날 生死의 苦難을 같이 겪던 장어사 부인이 인광에게 와서 타이르나 이 일을 두고는 인광은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소위공이 程府에 왔다가 장소저의 위급함을 보고 處士에게 인광과 장소저를 名分있게 잘 다스리기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이에 處士는 태부인의 허락을 얻어 장소저를 친정에 보내어 조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공의 뜻을 받아 장소저도 귀령케 하였다. 머느리를 보내고 處士는 인광의 沒人情함을 탓하는 한편 아버지의 경계를 저버린다 하여 杖 四十을 쳤다. 이후 인광은 若干 마음을 돌렸다.

안성도위 교성의 長子 교한필은 두 부인을 두고 있었다. 원비 여씨는 국구 여형수의 필녀요 차비 호씨는 병부주사 호규의 딸이었다. 원래 호규의 딸로 定婚하였으나 호주사가 죽으매 成婚치 못하다가 門閥이 좋은 국구의 딸과 成婚하였다. 그러나 호소저가 그 몸을 지키고 있으니 公主는 계속 호소저를 도우며 그녀 데려오기를 말하였으나 駙馬가 듣지 않다가 죽자 公主가 새워서 그녀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에 여씨가 투기함을 꺼려 公主와 교한필은 有情하면서도 길으로는 태연히 지냈다. 두 부인이 다 胎氣가 있었는데 여씨는 딸을, 그리고 호씨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여씨가 낳은 女兒는 오

래지 않아 죽고 말았다. 호씨가 두번째 胎氣가 있자 여씨도 胎氣있다 하고 지내다가 호씨가 生男하니 여씨는 가족들에게 精神 흐리는 藥을 먹이고는 호씨의 아들을 훔쳐 江에 버리게 하는 한편 자기도 出產하였다 하고는 朱處士의 딸을(주부인이 친정에 가다가 도적에게 빼앗긴 딸) 사다가 길렀다.

여씨는 外間男子가 牆內에 들어온 것처럼 꾸며 호씨를 내치려 하였으나 公主 母자는 그녀를 궁벽한 곳에 幽閉시켰다. 그뒤 여씨는 侍婢로 하여금 그 딸을 毒殺케 하고는 그 죄를 모두 호씨에게 뒤집어 씌우매 그녀는 그만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후로 여씨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 이르렀다.

숙난소저가 자라매 그 父親이 金品寶華 좋아함을 말하니 기특히 여기고 어머니는 나쁘나 딸은 칭찬할 만하다 하며 그녀를 사랑하였다. 소저는 母親 호씨의 뒤를 따라 그 궁벽한 곳에서 世上에 나오지 않겠다 하고 지냈다. 그러던 때 婢子가 와서 그녀의 어머니 호씨가 生存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母親의 글을 받아본 숙난소저는 지금까지 모친의 초상을 치러달라던 고집을 꺾고 그 대신 外祖母를 보지 못하였으니 外祖母를 보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그 父親이 가마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 오게 하였는데 그때 호씨도 함께 와서 남몰래 딸과 만났다. 이때 여씨는 婢子들을 시켜 이들을 燒死케 하려 했었는데 열앵이란 婢子가 그 사실을 숙난소저에게 알려 주었기에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숙난소저가 자라매 상서는 公主와 相識하여 擇婿하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程處士의 三子 인경으로 請婚하였으나 程府에서 사양하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여씨는 그의 表侄인 유진의 아들을 천거하였으나 상서는 그들이 財物을 탐하는 小人輩라 하여 이를 응락하지 않았다. 이에 여씨는 옥노를 던져 그것이 맞는 쪽으로 定하자고 해놓고 열앵으로 하여금 유공자가 지나가는 때를 타서 옥노를 던지도록 했었다. 그러나 열앵은 어떤 날선 公子가 지나감에 그만 그 옥노를 던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程處士의 三子에 맞게 되었다. 이에 公主는 上에게 賜婚을 請하였고 程府에서도 굳이 反對하지 않아 이들은 定婚하기에 이르렀다.

吉日에 신랑이 교부에 다달으자 여씨가 부린 刺客이 칼을 쏘았으나 다행히 빗나갔다. 刺客이 칼을 휘둘러며 有情함을 두고 다른 곳에서 百年을 偕老할 것 같으냐고 날뛰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황황하였다. 式場이 어수선해지매 인경은 그대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皇上께서 賜婚한 것이라 禮만을 이루고 곧 돌아오고 말았다. 이 경황을 당하고 숙난이 失神하자 여씨는 소저를 깊숙히 감추고 상서 앞에 나아가 사경도 잘 모르면서 程府에 出嫁시켰다고 不胫을 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소저가 낙태를 하였다 하고는 피덩어리를 가지고 오매 집안이 모두들 혼절을 하고 말았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하고 여씨는 表從인 시어사 매봉으로 하여금 이것을 皇上께 上表케 하니 上이 大怒하여 상서를 삭탈관직하여 田里에 내치니 公主는 宮中에 들어가 석고대죄를 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아온 열맹은 그 結果가 너무 엄청나게 進展하매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擊鼓를 하였다.

인경의 꿈에 叔母인 양부인(참정공 初娶)이 나타나 그의 아내인 교소저는 本來 주씨의 딸이라는 것과 그녀의 원팔에 “지성”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니 그것을 징험하여 그녀가 곧 本父母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 또 인경이 그녀와 天定緣分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그녀에게 厄運이 다 가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말하였다. 그는 이 꿈이야기를 태부인과 화씨(生母)에게 말하고 소저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돕게 하였다.

여씨는 숙난소저를 봉산으로 데려가는 途中에서 拉致하려 하였으나 病中이라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교소저는 미리 그 화를 생각하고 채월을 대신 수레에 오르게 하였는데 中途에서 이 賊徒들은 그 수레를 急襲하였다. 이때 채월이 거짓 자결한 채하니 유혈이 낭자함을 본 拉致犯들은 그녀가 그만 죽은 줄로만 알고 달아나 버렸다. 이후 소저는 남모르는 벽실에서 숨어 나오지 않으니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인광(태우)이 장소저를 돌려보낸 뒤 소소저가 집에 있었으나 그녀는 도시 재보(인광)의 전졸을 말으려 하지 않으며 程府에서는 이들의 節義를 칭찬하며 지냈다. 인광이 慈殿에 扈從하고 元帥 父子의 出征함과 장소저 내친 일 등으로 마음이 울적하여 徘徊하다가 乾象을 보게 되었다. 장소저의 主星이

매우 위태롭고 자신의 處地가 외로움으로 갈등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色보다는 倫理 쪽을 따르기로 하고 다음날 張家의 第三公子의 吉日에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갔다는 叔母들이 장소저가 杜門不出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의 病勢가 매우 위급하다는 말을 하는데다가 母親의 간절한 권유를 듣고는 지금까지의 고집을 한결 늦추었다.

장헌의 세째 아들인 세린은 好色快活한 男兒였다. 장헌과 朴氏는 世慾을 바라고 當代의 勢家인 여원홍의 딸을 세린의 아내로 許婚하였다. 연씨와 세린은 그것을 極口 反對하였으나 그 婚姻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세린은 그녀의 추한 얼굴을 본 뒤로 한번도 그녀와 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장헌은 자기의 處事가 拙速하였음을 後悔하고 있었다.

어느날 한 童子가 세린을 찾고 師父(華山 욱화진인)의 분부라면서 한 幅의 그림을 그에게 주고 갔다. 그 그림을 보며 자기 설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程府의 인증이 들어왔다. 그는 그 그림을 보고 놀라며 자기의 從妹(경조공의 딸)와 같다고 했다. 이후 세린은 畫幅 속의 그 主人公을 오매불망하였다. 秋九月 重陽節에 인홍이 張公子들을 玩月臺로 招待하였는데 이날 세린은 峯頭에 올라 상운각(그녀의 處所)을 내려다 보다가 昏倒하고 말았다.

한편 세린이 연소저를 박대한다는 말을 들은 여원홍은 딸에게 婦道를 다 하여 男便의 사랑을 차지하라고 당부하였다. 母親인 만씨는 巫女 術士들과 奸計를 도모하였으나 張家에서는 연씨가 총찰하고 程부인이 힘써 그녀를 도우니 별다른 효험을 얻지 못하였다. 여소저는 朴氏에게 달라붙어 일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세린은 죽기로써 畫幅 속의 女人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인광의 아내인 장소저가 病中이면서도 朴氏에게 세린의 病勢를 말하고 보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린이 여러날 위급한 지경을 겪게 되자 朴氏는 여소저에게 그녀의 허물을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正面으로 덤비며 무서운 패설을 다 퍼부었다. 이에 張公은 하는 수 없이 當分間 여소저를 淸정에 데려가도록 하였다. 여원홍은 밝은 사람이라 女兒의 패륜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張家에서는 여소저를 보낸 뒤 여러가지로 세린의 病因을 찾으려 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지냈다. 그러다가 仲兄인 희린이 세린에게 갔다가 問題의 그 畫幅을 發見하고는 그 그림 속의 女人이 程景宗공의 畢女임을 알게 되었다. 연씨는 세린이 그 畫幅을 얻게 된 경위를 묻고는 정소저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세린이 성염소저(畫幅 主人公)와의 婚事가 可能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더군더나 정경조는 性品이 남달리 날카롭고 곧기 때문에 함부로 發說할 수가 없었기에 정소저도 얼른 대답을 못하였다. (卷 50)